

## ◎ 世界經濟 貿易不均衡속 鈍化 不可避

崔 閔 基

〈産業研究院動向分析室 研究員〉

### 1. 概 況

금년 들어 世界經濟는 작년 10월 株價大暴落 이후의 경기침체 우려와는 달리 활발한 成長勢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美國, 日本, 西獨 등 주요 선진국들이 世界證市安定을 위한 정책협조를 신속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문시 되어온 換率, 金利 등 가격변수들의 조정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世界景氣의 好調에도 불구하고 國際貿易·金融去來上의 각종 不均衡은 아직 만족할만큼 改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換率, 油價 등 주요 가격변수도 불안정한 조정국면 속에 급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國際經濟全般에 걸친 불확실성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아울러 최근의 景氣好調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主要國의 物價上昇은 80년초 不均衡深化라는 큰 부담을 안고 달성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物價昂騰 움직임으로 再然될 가능성마저 內在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89년 중 世界經濟는 物價上昇憂慮가 점증되는 가운데 成長勢가 둔화되고 貿易伸張率도 낮아지는 비교적 완만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세계경제의 여건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成長面에 있어서는 物價上昇을 억제하

기 위해 금년 3월말 이후부터 실시된 주요 선진국의 金融緊縮政策으로 인해 美國, 日本, 西獨 등 主要先進國의 內需伸張勢가 鈍化될 것이라는 점이다. 금년들어 주요 선진국의 物價는 작년 株價大暴落 이후 실시된 金融緩和政策에 따른 通貨量 增大, 1次產品價格의 上昇, 主要國의 産業稼動率 上昇으로 인한 供給隘路와 美國의 반발로 인한 農産物價格 急騰 등으로 上昇勢를 지속하였다. 또한 物價上昇勢가 당분간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요국의 金融緊縮政策은 89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89년 중 主要先進國들이 財政政策의 緊縮基調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成長에는 마이너스로 作用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貿易面에 있어서는 세계 경제력의 多極化現象이 가속화됨에 따라 地域主義와 雙務主義의 강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0년대 초까지도 世界貿易不均衡이 균형상태에 근접할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國際經濟의 주요 현안문제들은 黑字國·赤字國 問題로 發展하여 선·후진국 그리고 경제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후진국은 시장개방, 통화가치절상, 내수확대 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國際油價, 國際金利, 달러貨價値 등 주요 價格變數들은 市場實勢를 反映하여 調整局面을 지속하겠으나 그동안의 조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

主要國의 實質 GNP 成長率 展望

<表-1>

(單位: %)

	1986	1987	1988					1989				
			DRI	WEFA	IMF	NIESR	KIET	DRI	WEFA	IMF	NIESR	KIET
世界 <sup>1)</sup>	3.2	3.1	-	3.5	3.8	-	3.6	-	2.7	3.1	-	2.7
先進國 <sup>1)</sup>	2.7	3.2	-	3.8	3.9	-	3.9	-	2.5	2.8	-	2.7
美國	2.8	3.4	3.9	3.9	4.0	3.2	3.8	2.5	1.9	2.8	1.4	2.4
日本	2.5	4.2	5.6	5.1	5.8	6.0	5.5	3.7	3.8	4.2	4.5	4.1
西獨	2.5	1.7	2.9	3.3	2.9	2.6	3.0	1.9	1.5	1.9	1.7	2.1
프랑스 <sup>1)</sup>	2.0	2.2	3.2	3.2	2.9	2.6	2.7	2.4	2.2	2.4	1.8	2.3
英國 <sup>1)</sup>	2.5	3.7	2.7	3.0	4.0 <sup>2)</sup>	3.9 <sup>2)</sup>	3.5	2.4	2.6	2.5 <sup>2)</sup>	2.4 <sup>2)</sup>	2.5
開途國 <sup>1)</sup>	3.3	2.5	-	2.4	3.6	-	2.4	-	2.9	4.0	-	2.8

資料: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Oct. 1988.  
 DRI, *Japanese Review*, 3rd Qtr. 1988.  
 DRI, *European Review*, Oct./Nov. 1988.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88.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88.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3rd Qtr. 1988.

註: 1) 實質 GDP 成長率. 2) Output 基準.

나 한 價格變數의 안정을 위해 市場實勢에 역행하는 것은 市場介入이 이루어질 경우 주요 가격변수가 또다시 급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2. 成長展望

88년 중 강한 成長勢를 보이고 있는 世界經濟는 89년에는 成長勢가 크게 鈍化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경제는 88년 중 3.9%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89년에는 2.7% 내외로 成長率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開途國經濟는 88년 중 經濟圈別로 成長隔差가 심화되는 가운데 2.4%의 낮은 成長에 머물 것으로 보이나 89년에는 금년에不振했던 中南美外債國家와 中東産油國經濟가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 내외로 成長率이 높아질 전망이다.

主要國別 成長展望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83년 이래 成長勢를 지속하여온 美國經濟는 88년 중 작년 추가대폭락 이후의 경기침체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고 과열에 가까운 景氣好調을 나타내 成長率이 87년의 3.4%보다 높은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5년말 이후의 달러貨價値 下落에 따른 貿易收支改善效果와 함께 여타국의 內需擴大에 힘입어 輸出이 크게 增加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輸出增加와 87년 추가대폭락 이후의 금융완화정책은 美國의 企業設備投資의 붐을 조성함으로써 成長勢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民間消費支出도 失業率 下落, 賃金上昇 등으로 인해 견실한 增加勢를 지속하여 成長勢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89년에 美國經濟는 成長勢가 鈍化되어 成長率이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美國經濟의 成長勢가 鈍化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첫째, 88년 중 美國의 成長을 主導하였던 海外部門에서는 89년 중 美國經濟에 플러스要因으로 계속 作用할 것으로 보이나 그 成長奇與程度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금년 중순의 달러貨價値의 반등에 따른 영향이 다소나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日

本, 西獨 등 여타 선진국의 內需擴大 정도가 금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物價上昇 억제를 위해 실시된 금년 3월말 이후의 金融緊縮政策으로 內需部門의 伸張勢가 鈍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에 강한 增加勢를 보인 企業設備投資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企業建築投資와 住宅建設部門도 88년의 不振에서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

로 전망된다. 또한 民間消費支出도 높은 消費者負債比率, 차기 부시 행정부의 저축상승을 위한 利子所得과 資本所得의 稅率引下政策 등으로 增加勢가 鈍化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財政政策面에 있어서 次期 부시 행정부는 財政赤字 감축을 위해 財政支出을 物價上昇率과 연계시키는 支出豫算의 伸縮의凍結(flexible freeze) 政策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財政支出의 실

世界貿易增加率 展望(物量基準)

<表-2>

(單位 : %)

		1986 <sup>1)</sup>	1987 <sup>1)</sup>	1988				1989			
				DRI	IMF	NIESR	KIET	DRI	IMF	NIESR	KIET
世	界 <sup>2)</sup>	4.5	5.8	6.8	7.5	4.8	7.6	4.8	5.6	4.8	5.3
先 進 國	輸出	2.6	5.3	-	7.7	-	7.8	-	5.1	-	4.8
	輸入	8.3	6.9	7.6	8.0	-	8.0	4.4	5.4	-	5.0
美 國	輸出	-0.9	12.9	23.1	26.6	17.4	25.0	12.4	10.8	7.8	10.0
	輸入	10.6	2.6	5.2	6.9	3.0	4.0	2.5	8.5	-1.5	3.0
日 本	輸出	-0.6	0.3	2.0	1.9	0.2	3.0	3.2	3.1	2.5	3.5
	輸入	9.5	9.3	15.2	15.0	11.1	15.0	10.3	4.4	7.6	9.0
西 獨	輸出	1.3	2.9	2.1	4.8	2.9	4.0	3.0	3.6	4.0	3.5
	輸入	6.1	5.4	4.7	6.0	4.8	5.0	3.9	4.0	7.0	4.0
프랑스	輸出	-0.9	3.7	6.8	6.0	6.0	6.3	4.9	4.5	4.1	4.0
	輸入	6.9	7.0	5.3	6.2	4.7	6.5	5.0	4.6	3.0	4.2
英 國	輸出	3.5	5.8	2.1	2.5	1.4	1.3	6.0	1.5	7.0	5.0
	輸入	6.5	7.4	11.3	10.1	10.2	11.0	5.5	2.9	8.4	6.5
開 途 國	輸出	10.5	8.6	-	7.7	-	7.8	-	6.8	-	6.5
	輸入	-4.5	4.4	4.1	8.0	-	8.0	6.1	8.0	-	7.0
OPEC	輸出	16.1	-2.5	-	3.3	-	3.5	-	3.6	-	3.5
	輸入	-22.0	-13.5	-7.0	-2.5	-	3.0	1.4	2.0	-	1.0
非 OPEC	輸出	9.1	11.7	-	8.6	-	8.5	-	7.4	-	7.0
	輸入	0.3	8.3	6.7	9.9	-	10.0	7.1	8.9	-	8.5

資料 :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Oct. 1988.

, *Japanses Review*, 3rd Qtr. 1988.

, *European Long-Term Review*, Oct/Nov. 1988.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88.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Aug. 1988.

註 : 1) 世界, 先進國, 開途國, OPEC, 非OPEC 등 그룹別 실적치는 IMF 推定值 引用.

2) DRI 展望値는 共産圈을 제외한 世界輸入物量基準이며, 實績值 및 IMF, NIESR, KIET 展望値는 共産圈을 포함한 世界 전체의 輸出物量增加率과 輸入物量增加率의 平均値임.

질증가는 제로수준에 그쳐 成長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日本經濟는 87년중 物價強勢로 인한 低成長局面을 극복하고 4.2%의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며 이어 금년에도 民間消費支出, 企業設備投資의 好調에 힘입어 5.5%의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日本經濟는 89년 중에도 금년의 景氣好況에 비해서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높은 4.1%의 견실한 成長勢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民間消費支出이 賃金上昇, 租稅減免措置 등으로 계속 높은 伸張勢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海外部門에서 換率의 상대적 안정으로 輸出이 增加할 것으로 보여 성장세의 마이너스 정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企業設備投資는 89년중 金利上昇과 輸入 急增에 따른 供給過剩으로 增加勢가 크게 鈍化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럽經濟는 89년중 內需部門의 不振으로 금년에 비해 不振할 것으로 전망된다. 西獨經濟는 금년들어 輸出이 好調를 보인데다 內需部門도 建設投資의 증가, 稅率調整에 의한 可處分所得의 增加 등으로 好轉됨으로써 成長率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89년 중에는 輸出이 다소 鈍化되고, 財政·金融政策의 緊縮基調로 內需가 不振할 것으로 예상되어 成長率이 2.1%로 낮아질 전망이다. 88년중 2.7%의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經濟는 89년중 財政赤字의 점진적 축소를 위한 財政緊縮政策의 強化, 정부의 사치품 消費抑制政策, 金利引上 등으로 內需가 不振할 것으로 보여 成長率이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英國經濟는 88년중 內需部門의 好調로 3.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89년 중에는 消費의 急增 등 경기과열을 우려한 高金利政策으로 內需部門의 伸張勢가 鈍化됨으로써 成長率이 2.5%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3. 貿易·國際收支

88년중 世界貿易伸張率은 선진국경제의 강

한 성장세에 힘입어 70년대 평균수준을 웃도는 7.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89년에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금년보다 완만한 輸入增加를 나타내 伸張率이 5.3%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선진국 전체의 수입물량 증가율은 88년중 지난해 보다 높은 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나 89년에는 선진국들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5% 내외로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별로는 선진국 총수입의 1/4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美國의 輸入이 物量基準으로 금년보다 낮은 3% 증가에 그침으로써 선진국 전체의 수입보다 저조한 증가세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주요국들의 輸入伸張率도 88년의 5~11%에서 89년에는 4~6.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輸入은 88년중 內需部門의 好調로 인한 경기호황으로 물량기준으로 15%나 크게 증가하였으나 89년에는 內需部門의 伸張勢가 다소 鈍化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87년과 비슷한 9.0%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82년부터 86년까지 減少勢를 나타내었던 開途國 전체의 輸入物량은 87년에 회복세를 나타내며 이어 88년에도 증가세가 가속됨으로써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89년에는 開途國輸入物量 增加率이 7% 내외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工業品 輸出開途國들의 輸入이 成長勢鈍化로 인해 금년보다 완만한 증가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石油輸出國들의 輸入은 89년중 지난 7년간의 減少勢에서 처음으로 增加勢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輸入增加幅은 아직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石油輸出國들이 經常收支赤字, 外債 등으로 輸入을 크게 늘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非石油 1次產品 輸出國들의 輸入도 금년에 비해 다소 높은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世界貿易問題에 있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先進國間 經常收支不均衡은 88년에 이어 89년에도 축소추세를 지속할 展望이다. 美國의 經常收支赤字는 88년중 1,350억 달러로 87

년에 비해 약 200억 달러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89년에도 經常收支赤字의 감소추세는 지속되나 美國의 輸出增加勢의 鈍化로 감소폭은 18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經常收支赤字도 88년에 100억 달러 가량 감소한데 이어 89년에도 4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西獨의 經常收支赤字는 88년과 89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7년에 거의 均衡을 이루었던 開途國의 經常收支는 88년에 다시 赤字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89년에도 非石油輸出國의 經商수지 악화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4. 國際金融

國際金利는 금년 3월 이후의 빠른 상승으로 年初에 비해 1% 포인트 가량 높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중에도 각국의 物價上昇勢가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國際金利는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美國金利는 금년 초만해도 美聯準의 流動性供給 增大로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나 3월 이후에

는 기대 이상의 경기호조와 物價上昇으로 인해 聯準이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상승세로 反轉하여 최근까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87년 말 8.75%이었던 美 프라임레이트는 2월 8.5%로 인하되었다가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인상으로 11월 하순 현재에는 10.5%를 기록, 선진국 공동금리인하 조치가 단행되었던 85년 5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美國金利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호조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物價上昇勢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프라임레이트를 비롯한 주요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성장세 둔화에 따른 資金需要의 減少와 연준의 다소 완화적인 金融政策으로 金利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들어 여타선진국에 비해 소폭의 상승에 그친 日本金利는 89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物價價値의 안정을 위한 金利差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소폭의 金利上昇, 下半期에 소폭의 金利下落이 예상된다. 西獨金利는 88년 중 美國金利와 變動方向, 變動幅을 같이 하며 움직이는 가운데 비교적 잦은 변동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유럽통화제도(EMS) 내에

主要國의 金利<sup>1)</sup> 展望

<表-3>

(單位: 年利, %)

		1987	1988					1989				
			I	II	III	IV		I	II	III	IV	
미 국	공정 할인율	5.7	6.0	6.0	6.3	6.5	6.2	7.0	7.4	7.5	7.5	7.3
	프라임레이트	8.2	8.6	8.8	9.7	10.0	9.3	10.3	10.7	10.8	10.5	10.6
	연방자금금리	6.7	6.7	7.2	8.0	8.2	7.5	8.8	9.3	9.0	8.6	8.9
	유로달러금리 <sup>2)</sup>	7.1	6.9	7.4	8.3	8.6	7.8	9.2	9.7	9.4	9.0	9.3
일 본	공정 할인율	2.6	2.5	2.5	2.5	2.5	2.5	2.5	2.7	2.7	-	2.7
	콜머니레이트	3.5	3.5	3.3	3.4	3.5	3.4	3.5	3.7	3.8	-	3.7
서 독	콜머니레이트	3.7	3.2	3.3	2.8	3.0	3.1	-	-	-	-	3.9
영 국	콜머니레이트	8.3	6.2	8.3	9.4	9.4	8.3	-	-	-	-	9.3
프랑스	콜머니레이트	8.0	7.5	7.8	7.5	7.9	7.7	-	-	-	-	7.8

資料: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Oct.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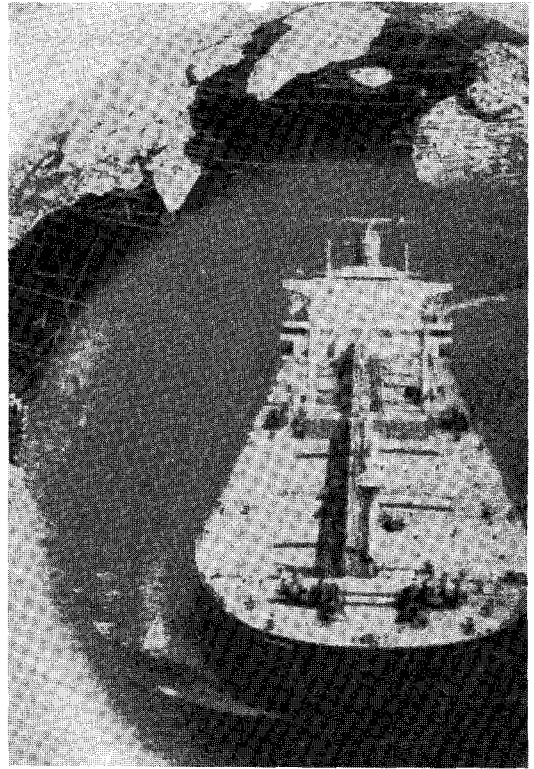
, *Japanese Review*, 3rd Qtr. 1988.

, *European Review*, Aug. 1988.

註: 1) 期間平均 金利. 2) 3個月物.

서의 중심통화 역할을 하는 西獨마크貨의 안정을 위해 美國金利 움직임에 연동시켰기 때문이다. 내년 중에도 이와 같은 정책은 지속되어 美國金利와 움직임을 같이하며 상반기 중에는 상승, 하반기 중에는 소폭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년 중순에 강한 회복세를 보인 달러貨價値는 금년 말에 다시 下落勢로 反轉되었으며 89년에도 계속 弱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첫째, 美國의 貿易赤字가 아직도 절대규모 면에서 거액인데다 최근에는 財政赤字黑積 문제마저 겹쳐 美行政府의 政策選擇幅이 크지 못하고 둘째, 海外部門의 成長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달러貨 下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美國經濟의 신인도 저하, 日本·西獨經濟의 부상 등 世界經濟의 재편과정에서 달러貨 需要減少, 엔貨·마크貨 需要急增의 양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89년 중 달러貨價値의 下落幅은 지난 3년여 보다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美國의 貿易赤字 등 구조적 불균형이 최근 들어



主要國 通貨의 換率展望

<表-4>

(單位: 달러當 各 通貨)

		1987	1988					1989				
			I	II	III	IV		I	II	III	IV	
WEFA <sup>1)</sup>	¥	121.2	124.2	133.0	134.8	123.0	123.0	122.1	121.10	120.10	119.0	119.0
	DM	1.571	1.656	1.812	1.870	1.720	1.720	1.708	1.696	1.683	1.670	1.670
	F. Fr	5.320	5.613	6.120	6.365	5.886	5.886	5.870	5.835	5.798	5.762	5.762
	£ <sup>3)</sup>	1.886	1.887	1.712	1.693	1.802	1.802	1.786	1.769	1.753	1.737	1.737
DRI <sup>2)</sup>	¥	145.9	127.8	125.7	124.5	116.3	116.6	-	-	-	-	109.1
	DM	1.795	1.674	1.695	1.775	1.630	1.694	-	-	-	-	1.546
	F. Fr	6.009	5.668	5.748	6.101	5.764	5.820	-	-	-	-	5.702
	£ <sup>3)</sup>	1.637	1.795	1.852	1.712	1.746	1.776	-	-	-	-	1.689
KIET <sup>1)</sup>	¥	122.0	124.6	132.3	134.4	120.0	120.0	118.5	117.5	117.0	115.0	115.0
	DM	1.582	1.659	1.821	1.880	1.680	1.680	1.675	1.670	1.670	1.650	1.650

資料: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November, 1988.

DRI, *European Review*, August, 1988.

- 註: 1) 期末換率.  
 2) 期間平均 換率.  
 3) 파운드當 달러.

國際原油價 推移 및 展望

<表-5>

(單位：달러/배럴)

	1986	1987	1988	1989
WEFA	14.0	16.7	14.6	14.6
DRI	14.8	17.3	15.3	18.0
NIESR	14.5	17.5	15.2	16.5
IMF	13.5	17.4	14.5	15.0
KIET	14.5	17.2	13.7	13.5

資料：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988.

DRI, *European Review*, October 1988.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August 1988.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988.

상당폭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동안의 換率調整으로 인해 주요국간 換率이 어느 정도 均衡水準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日本 엔貨에 대한 달러貨價値는 87년말 달러당 122엔에서 88년 말에는 달러당 120엔, 89년말 115엔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독 마르크貨에 대해서도 88년중 달러貨價値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89년에는 다시 下落하여 89년말 달러당 1.650마르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5. 國際資源

지난 86년 중순 바닥권을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나타낸 國際原油價는 87년 8월 이후 다시 下落局面에 접어들었으며 금년 들어서도 下落勢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國際原油價의 下落勢가 深化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石油輸出國機構(OPEC)의 産油量 急增을 들 수 있다. 지난 8월 이란과 이라크가 休戰에 조인한 후 OPEC의 協調體制 再強化를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의 合同會議를 잇달아 개최하였으나 이라크의 쿼터 참여와 현행 생산쿼터의 조정문제 등 주요사항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OPEC 각국은 생산쿼터 조정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자 다투어 증산에 나섰다. 반면 自由世界の 石油需給은 88년 중 세계적인

경기회황에도 불구하고 1.8% 증가에 그쳤다.

89년 중에도 國際原油價는 금년 11월의 OPEC의 생산쿼터 재조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세권에 계속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PEC의 原油生産이 현실적으로 대폭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OPEC가 油價回復을 위한 産油量 減縮努力을 지속할 것이지만 하루 1,000만 배럴에 이르고 있는 엄청난 유류 생산설비가 상존하고 있고 低油價로 인해 石油收入이 대폭 줄어들면서 OPEC 각국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産油量 減少를 可視化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란과 이라크는 休戰後 파손된 石油施設復舊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國際原油市場을 악화시킬 요인의 거의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國際原油價는 OPEC의 수습여하에 따라 상당한 등락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非石油 1次産品 價格은 88년 들어 상승세가 가속되었으나 89년에는 下落勢로 反轉할 전망이다. 88년 중 非石油 1次産品 價格은 世界主要國의 景氣好況과 北美地域의 農産物 생산격감을 포함한 생산차질에 따라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일부 품목의 경우 2배 이상 급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40% 가까이 상승하면서 供給物量이 증대되고 있어 1次産品 價格은 89년 중에는 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